삼구의 꿈, 찬구가 이어받나… 금호석화 다크호스로

〈前 금호아시아나 회장〉 〈금호석화 회장〉

아시아나 새 주인 누구

아시아나항공 매각 기업 관심 쏠려
예상가 6000억… SK 인수 유력후보

국내 2위 국적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확정되면서 항공 업계는 물론 국내 기업들의 관심이 새 주인에 집중되고 있다.

14일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채권단 등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는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위한 매각 주간사 선정,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적법한 매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예상 가격은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고려해 최소 60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되며 인수 이후에도 경영 정상화를 위한 추가 자금력도 갖추고 있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인수전은 SK그룹과 한화그룹, 애경그룹, 롯데그룹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호석유화학과 미래에셋이 '다크호스'로 부상해 인수전 합류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다.

◆SK·한화·애경 등 잠재적 인수 후보

아시아나항공의 잠재적 인수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국내 기업은 SK그룹과 한화그룹, 애경그룹, 롯데그룹 등이 있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SK그룹이다. SK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설은 지난해 7월부터 흘러나왔다. 그룹의 주력사업인 정유사업을 통해 항공유의 안정적 수급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배터리·반도체 등 그룹 내 소재 계열사들의 높은 항공 수요 등을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최남규 전 제주항공 대표를 수펙스추구협의회 글로벌사업개발담당 총괄부사장으로 영입했다는 것도 인수설의 배경이 됐다.

현재 SK그룹은 "아시아나항공 지분 인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공시했지만 업계에서는 SK그룹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화그룹도 잠재적 후보다. 한화그룹은 이전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인수를 검토하는 등 항공분야에 높은 관심을 보여왔다. 또 한화그룹은 항공기 엔진사업을 담당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항공운송사업에도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화그룹은 지난해 저비용항공사(LCC) 에어로케이에도 재무적투자자로 참여했다가 항공운송사업 면허 반려로 투자금을 회수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항공업계 합병이나 매수 등의 이슈가 나올때마다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국내 1위 LCC 제주항공을 소유한 애경그룹은 국내 2위 대형항공사를 인수하면서 그룹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 외에도 금호산업이 매물로 나왔을 때 인수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진 신세계그룹, 물류 부문 강화를 노리고 있는 롯데그룹와 CJ그룹도 인수점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금호석유화학·미래에셋대우 인수 다크호스되나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후보자로 금호석유화학그룹과 미래에셋그룹이 다크호스로 주목받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11.98%를 보유 중이며, 호남을 기반으로 성장한 글로벌 투자전문 그룹 미래에셋도 이번 인수전의 강력한 다크호스로 지목되고 있는 것.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지분은 최대주주인 금호산업에 이어 금호석유화학이 두번째로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현재 주가를 고려하면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한 지분에서 최대 3000억원을 투자하면 아시아나항공 경영 참여가 가능해진다.

특히 금호석유화학은 최근 실적 상승세를 기록하며 자금력도 갖추고 있다. 지난해 5000억원대 영업이익을 올리면서 8년 만에 연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 역시 같은 기간 131.2% 증가한 5031억원을, 매출은 10.3% 증가한 5조5849억원을 각각 거두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논의된 내용이 없다"고 "추후에도 인수와 관련해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호남 기업인 미래에셋대우도 인수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미래에셋은 2006년 중국 상하이 푸둥 대형 빌딩(현 미래에셋상하이타워) 인수를 시작으로 다양한 지역과 분야에 대형 투자를 단행해 왔다.

작년에만 미국 하와이 포시즌스호텔과 영국 런던 트웬티올드베일리빌딩 인수 등에 성공했고, 세계 최대 드론 기업 DJI, '중국의 우버' 디디추싱, '동남아시아의 우버' 그랩에 지분 투자를 단행했다. 올해에도 한국 증권사 해외 부동산 투자 사상 가장 큰 규모인 1조원짜리 프랑스 파리 마중가타워 인수에 성공했다. 국내 금융회사 가운데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현주 회장은 지난달 25일 출장지인 미국 뉴욕에서 보낸 편지에서 "국내외 관광객을 국내에 유치할 플랜을 만들어 고용을 창출하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강원도와 남해안 개발에도 적극 나서려 한다"고 밝혔다.

처음도 아니다. 또 다른 출장지에서 보낸 편지에서도 "연 5000만명의 관광객 시대를 상상해 본다. 한국을 오고 싶은 나라가 되도록 환경과 관광 인프라에 관심을 두고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금호, 대우건설 인수부터 아시아나 매각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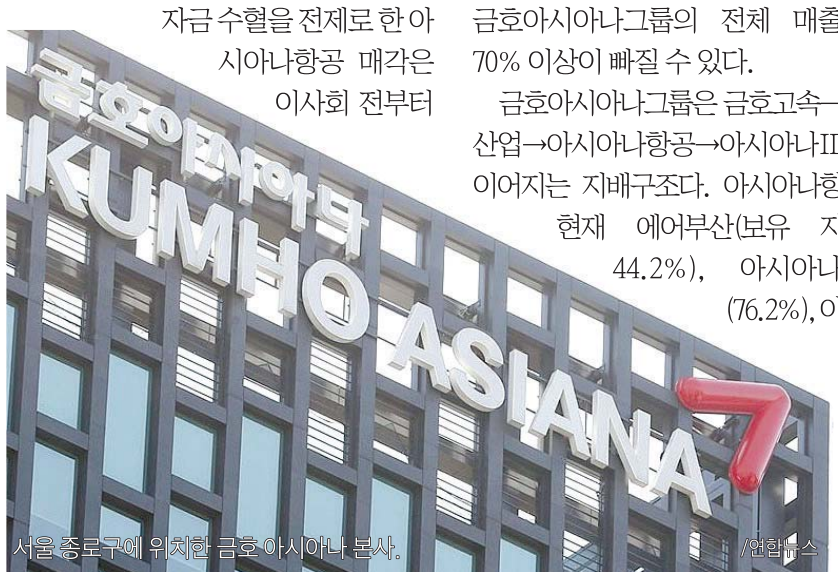
2006년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대우건설 인수
2008년 3월	대한통운 인수
2009년 6월	대우건설 재매각 발표
7월	박삼구–박찬구 형제 동반 퇴진 발표
11월	금호생명 매각 결정
12월	유동성 위기로 금호산업·금호타이어 워크아웃, 금호석유화학·아시아나항공 자율협약 추진 발표
2010년 1월	주요 계열사 워크아웃·자율협약 돌입
2월	금호석유화학 계열분리 추진
10월	박삼구, 그룹 회장으로 복귀
2011년 7월	대한통운 CJ그룹에 재매각
2012년 6월	금호고속 매각
2013년 11월	박삼구, 금호산업 대표이사 복귀
2014년 10월	금호산업 조건부 워크아웃 졸업
12월	아시아나항공 자율협약 졸업,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졸업
2015년 1월	금호산업 채권단, 지분 매각 공고
4월	호반건설, 금호산업 본입찰에 6007억원 단독 응찰, 채권단 거부로 유찰
5월	금호아시아나그룹, 금호고속 4150억원에 재인수
	금호산업 채권단, 박삼구 회장과 우선 협상 결정
12월	박삼구, 금호산업 경영권 지분 인수대금 7228억원 완납
2016년 1월	박삼구, 금호타이어 인수 통해 그룹재건 의사 표명
11월	금호타이어 매각 예비 입찰
2017년 1월	우선협상자로 중국 타이어제조사 더블스타 선정
3월	박삼구, 채권단에 '금호타이어 인수전 참여 위해 컨소시엄 구성 허용' 요청
	채권단, 박삼구 회장 컨소시엄 구성 요청 거부
9월	산은, 금호타이어 자구계획 부결후 채권단 주도 정상화 추진 결정
	박삼구, 금호타이어 경영권 포기 발표
2018년 7월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 대란
2019년 3월 22일	아시아나항공·금호산업 감사보고서 감사의견 '한정'
3월 22~25일	아시아나항공·금호산업 주식 매매 정지, 아시아나항공 상장채권 '아시아나항공 86' 상장 폐지
3월 27일	아시아나항공·금호산업 감사의견 '적정'으로 정정 공시
3월 28일	박삼구 회장, 아시아나항공 · 금호산업 대표이사 · 등기이사직 사퇴
4월 3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호아시아나 그룹에 자구계획 제출 촉구
4월 10일	금호아시아나그룹,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에 자구계획 제출
4월 11일	아시아나항공 채권단, 금호아시아나그룹 자구계획 거부
4월 14일	산업은행–금호아시아나그룹, 아시아나항공 매각 관련 협상
4월 15일	금호아시아나그룹, 이사회서 아시아나항공 매각 결정

아시아나 자회사 에어부산·에어서울도 '시선집중'

함께 매각땐 그룹매출 70% 빠질수도
매각 수순 밟으면서 향방 결정될 듯

금호아시아나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이 매각 수순을 밟게 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지분을 보유한 저비용항공사(LCC)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의 향방에 항공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금호산업은 15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을 발표했다. 이날 이사회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자금 수혈을 전제로 한 아시아나항공 매각은 이사회 전부터 확실시됐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금호 아시아나 본사. /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이 결정되면서 에어부산과 에어서울도 아시아나항공과 함께 새로운 대주주를 맞을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아시아나항공과 자회사들까지 함께 매각되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전체 매출에서 70% 이상이 빠질 수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고속→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아시아나IDT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에어부산(보유 지분율 44.2%), 아시아나IDT(76.2%), 아시아나에어포트(100%), 아시아나세이버(80%), 아시아나개발(100%), 에어서울(100%) 등을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다.

특히 에어서울은 아시아나항공의 100% 자회사인 만큼, 아시아나항공이 매각되면 에어서울도 함께 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의 향방은 매각 수순을 밟으면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인수가능 기업을 정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 지분 33.4%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날 이사회 결정에 따라 금호아시아나는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위한 매각 주간사 선정,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매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치열한 인수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인수가능 기업과 에어서울, 에어부산의 향방이 빠르게 결정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앞서 금호아시아나는 지난 9일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자구안을 제출했다. 박삼구 전 회장 일가가 가진 금호고속 지분을 모두 담보로 맡기고 5000억원의 유동성 지원을 요구하는 게 자구안의 핵심이다.

그러나 금호아시아나는 지난주 정부와 채권단이 자구 대책을 거부한 데다 경영진에 대한 불신까지 공개적으로 밝히자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매각 이후 인수 가능한 기업으로는 SK와 한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고심해왔으며,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는 것이 그룹과 아시아나항공 모두에게 시장의 신뢰를 확실하게 회복하는 것이라 여겼다"고 전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

제58차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경매교육
400,000원 →
60,000원 (85% 할인)
● (평일반) 2019년 5월 15일~6월 5일
매주 수, 목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 총8강
4주차는 6월 4일(화) 6월 5일 (수)
● (주말반) 2019년 5월 18일~6월 8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30분 / 총8강
● 현장교육 (별도옵션) : 300,000 → 130,000원
5월26일(일), 6월 2일(일), 6월 4일(화)
※사전 수강 신청 필수! 홈페이지 참조! www.leadersauction.com
교육문의 02) 521-9111 (강남역 5번출구)